



방사성 물질 제거 나선 자위대

일본 자위대 대원들이 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15일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에 도착, 보호장비를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실종 6000명...연락두절 3만명

이재민 55만명...한국 구조대 수색활동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 3일째인 15일 사망 및 실종자 수가 6000명에 육박하고 이재민도 5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일본 교도통신과 경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야기(宮城)현의 해안 지역 두 곳에서 시신 2000여구가 발견됨에 따라 사망 및 실종자 수가 5900명으로 파악됐다.

주민의 절반 이상인 1만명이 행방 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던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조(南三陸町)에서는 이날 2000여명이 43개소의 대피소에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8000여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지진 피해 지역에서 3만명 가량이 연락 두절인 상태여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 당국은 지진으로 전파 또는 부분 파손된 건물 7만여동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 구조팀을 동원한 생존자 수색 노력으로 1만5000명이 피해 현장에서 구조됐다. 전체 이재민 수는 55만명 가량으로 6개현 2600개의 대피소에 분산·수용돼 있으나 식수, 음식, 연료가 부족한 상태며 일부 피난소는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일본 자위대는 구호 작업에 병력 10만명을 투입한 데 이어 예비군을 사상 처음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6500명 정도가 예비군 소집에 응했다. 일본 기상청은 14일에만 다섯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일본에 파견된 한국 긴급구조대도 구조활동을 개시했다. 우리 측 구조대 90명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일본 경찰 50명과 함께 샌다이시 가모지구에 투입돼 실종자 구조 등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조대는 16일에는 교민 거주지역인 샌다이 시내 1개 지역과 미야기현 내 2개 지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원 107명과 구조견 2마리로 구성된 긴급구조대는 지난 14일 샌다이시 인근의 미야기현 종합운동공원 운동장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연합뉴스

2·4호기도 폭발 ‘방사능 재앙’

도쿄서도 방사성 물질 관측...5·6호기 이상 관측

일본 대지진

관련기사 ▶2·3·4·5·6·8·9면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지난 12일과 14일 원자로 1호기와 3호기가 폭발한 데 이어 15일에는 2호기와 4호기가 잇따라 폭발하는 등 나흘새 4번이나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발생,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2호기 폭발사고에서는 격납 용기가 손상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

는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북풍을 타고 도쿄를 포함한 각지로 확산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호기의 경우 원자로 격납용기의 압력억제실(스프레이션 풀) 설비 부근에서 오전 6시 15분께 폭발음이 발생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은 폭발사고 소식을 발표하면

서 이 설비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격납용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비다.

제1원전 정문에서는 이날 오전 8시 31분 현재 시간당 8217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량이 검출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자 도쿄전력 측은 주변 주민들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오전 9시 38분께에는 정기점검 중이던 제1원전의 4호기에서도 수소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잇따른 원전 폭발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은 북풍을 타고 각지로 퍼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도쿄(東京)를 포함한 간토(關東) 지역에서 통상보다 높은 수준의 방사성 물질이 관측됐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도치기(茨城)현에서는 통상의 100배 정도인 매시 5마이크로시버

트가 관측됐으며, 가나가와(神奈)현에서는 통상의 10배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 도쿄도 내에서도 대기 중에서 요소와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날 일본 주요 언론들은 에다노 유키오 일본 관방장관이 오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5·6호기에 대해 “온도가 약간 상승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토통신은 5·6호기 냉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잇따른 원전 폭발에 이어 격납용기마저 손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사능 유출에 따른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경우 입는 피해를 줄여주는 요오드제(東京)를 포함한 간토(關東) 지역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문가팀을 보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연합뉴스

광주시·전남도 日돕기 성금모금

광주시와 전남도가 15일부터 지진과 쓰나미로 사상 최대의 피해를 겪고 있는 일본 국민을 돕기 위해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 성금 모금에 나섰다.

광주시는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샌다이시를 돕기 위해 광주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13일까지 모금운동에 나서기로 했고,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 등 출연기관 전 임직원까지 모금에 동참할 예

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또 관내 자치구 및 시·군, 기관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도 모금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구조·구급 소방대원과 구호 물품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의료지원과 복구지원반을 긴급 구성하고 샌다이시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파견하기로 했으며, 샌다이시 요청에 따라 생수와 컵라면 등 1억원 상

당의 구호물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가족과 생활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일본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따스한 인류애를 보여야 할 때”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앞서 지난 14일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빠른 구조와 복구 작업으로 모든 이들이 조속히 수습돼 일본 사회가 하루속히 안정과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홍행식·김지을 기자 chadol@

화순 주민 32명 ‘30배 과태료 폭탄’

군수선거때 쇠고기 받아...1인당 210만원씩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화순군수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7만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32명에게 1인당 210만원씩 총 6천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선거구민 32명에게 설날 쇠고기 선물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입후보예정자 전원준 전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선물을 받은 32명 전원에게 금품 7만원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녀달 앞둔 2월8~12일 당시 화순군수인 전씨의 측근에게서 설 선물로 쇠고기를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전씨

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지만 곧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 화순군수 재선거가 치러진다.

도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예술작품으로 빛나는 이태리의 정통 명품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점포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어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

MUSEO 뮤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 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품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신세계백화점 금호빌드

뮤제오 메리어트 웨딩홀 동성교회로 상록회관 KB 국민은행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